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17일째인 10월23일 양평 소노문 리조트에서는 조계종 중앙총회 주최로 대중공사가 열렸다.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순례대중과 중앙총회의원,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이 참석해 한국불교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만행결사 천리길... 다시한번 불교중흥”

순례17일째 양평서 대중공사 중앙총회 주최 “중단방향 제고” 총무원 부실장 본사 주지 동참 “대중화합으로 결사 원만회향”

불교중흥 국난극복을 위해 10월7일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를 출발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동참대중이 천리를 걸어 경기도 양평에 도착했다. 순례 17일째인 10월23일까지 총 411km를 행한 만행결사 대중은 결승마다 뜻 깊은 평안과 불교 활성화를 받았다.

대구·경북, 충청, 경기지역을 지나오며 만행결사 동참 대중은 머무르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하고 한국불교를 위해 힘쓰고 어려운 길을 자처한 순례단에 감복한 사부대중이 공양을 올리기를 위해 찾아온 것이

다. 자비순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일 동참자들도 점점 늘어났다. 스님과 불자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등도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순례했다.

거리가 늘어날수록 부상자들도 속출했다. 통증이 심해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대중이 늘어났다.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스님은 “하루 30km에 가까운 길을 걷는 힘든 여정이라 부상자도 있지만 모두 함께 회향하자는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비순례 소식을 듣고 성원을 보내주는 사부대중의 힘으로 순례도 원만 회향하고 한국불교 중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선 외에도 결사 대중은 10월23일 양평 소노문 리조트에서 한국불교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범해스님)가 주최한 대중공사에서 불교 현안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총무원 집행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승려노후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구본사별 부분 재정 통합 또는 재정 공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만행결사

가 한국불교 중흥의 커다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단 집행부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밤12시부터 순례 대중과 중앙총회의원 40여 명은 야간 정진을 함께 했다.

한편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26일 서울 봉은사에 도착, 오후1시부터 80여 참가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자자 시간을 갖는다. 회향일인 10월27일에는 오전4시 행선을 시작해 위례 상월선원을 거쳐 다시 봉은사로 돌아와 회향식을 봉행한다.(10월23일 현재)

양평=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상월선원 만행결사 특별섹션 4개면



- 상월선원 만행결사, 무엇을 말하나 1면
- 결에서 본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 2면
- ‘한국불교 어디로 가는가’ 대중공사 현장 3면
- 사진으로 다시 만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 4면

社告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 신행수기 공모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정호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의 진수를 전하는 화엄산림 대법회를 기념하기 위해 신행수기, UCC, 자료수집 등 기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부대중의 동참 바랍니다.

1 신행수기 공모

- 주제: ‘나와 통도사 화엄산림’
- 분량: 200자 원고지 5매이상 20매 이내
- 대상: 누구나
- 시상: 영축총림상(방장스님) 1명 300만원
금강계단상(주지스님) 1명 200만원
화엄도량상 등 6명(각 50만원)
반야바라밀상 등 6명(각 30만원)
환희지상 등 10명(각 20만원)

2 청소년 UCC 공모

- 주제: ‘화엄산림’ ‘통도사’ 가운데 택1
- 분량: 1분30초 이내 동영상
- 대상: 청소년(중, 고, 대학생)
- 시상: 영축총림상 1명 100만원
금강계단상 2명(각 50만원)
적멸보궁상 5명(각 20만원)

- 접수기간: 2020년 10월1일 ~ 12월30일
- 접수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영축총림 통도사 교무국(gyomu@tongdosa.or.kr)
불교신문(soolee87@kaka.com)
- 문의: 불교신문 편집국 이성수 기자 (☎02-733-1604)
- 발표: 2021년 1월10일 통도사 홈페이지, 불교신문 홈페이지 및 지면
- 시상: 2021년 1월12일(화엄산림 회향법회)

주최: 영축총림 통도사·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021 ‘불교신문 신춘문예’ 등용문 열렸다

한국불교문학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불교신문 신춘문예의 등용문이 열렸다. 불교신문(사장 정호스님)은 11월2일부터 30일까지 ‘2021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단편소설과 시·시조, 동화, 평론이다. △단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70매 또는 A4용지(아래한글, 11포인트) 10매 내외 △동화는 30매 또는 A4용지(아래한글, 11포인트) 4매 내외 △평론은 60매 또는 A4용지(아래한글, 11포인트) 8매 내외 △시·시조는 개인당 5편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단편소설 당선자는 상금 500만원, 시·시조 및 동화, 평론은 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당선작은 각 부문별로 1편을 선정하며, 당선작이 없을 경우 해당 상금에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당선작은 2021년 1월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에 발표되며, 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보된다.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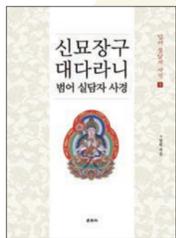
진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발표된 원고 및 표절,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은 당선 시 취소된다. 응모작 접수는 서울시 중로구 우정국로 67(경지동 13) 전법회관 2층 불교신문 신춘문예담당 앞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해외에서 응모하는 경우엔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한 가운데 이메일(bud22@ibulgyo.com)로 접수 받는다.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지난 1964년 시작해 현재 35회를 맞고 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인 문학인을 발굴하는 장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조경래·한승원·성석제 소설가, 문학평론가 홍기삼 동국대 전 총장, 최동호 고려대 교수, 방민호 서울대 교수 등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들이 심사를 맡으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 중단협 ‘제주 법정사 항일유적지 참배’ 현장 3면

불보살의 가피가 가득한 범어사경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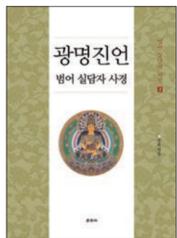
신묘장구대다라니

범어 실담자 사경

광명진언

범어 실담자 사경

범현 지음/사륙배판/160쪽/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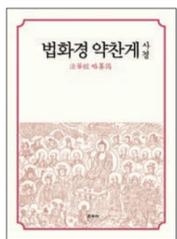
망월사본 『진언집』을 저본으로 하여 원음 그대로의 범어 실담자로 복원하였다.

방대한 범화경을 1008자로 압축한 약찬게!

범화경 약찬게 사경

약찬게를 사경하면 범화경 전체를 사경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한문 사경과 한글음 사경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편집부/사륙배판/96쪽/값 5,000원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불교 A부터 Z까지,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절에 들어서면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건축물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불교교리, 그리고 참선이나 염불 등 수행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이해에 필요한 핵심 코드를 평이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서술!

도후 지음/국판 변형/296쪽/전면컬러/값 15,000원

